

구약논찬

제 16권 2호(통권 36집) 2010년 6월 30일

손 세훈(그리스도대)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92
본 글의 목적은 시편에 표제어를 첨가할 당시, 편집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표제어와 본문과의 상관성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제어의 음악적 지시와 역사적 언급을 본문과 비교하였다. 총 29편(시 3, 7, 8, 9, 16, 22, 32, 42, 44, 45, 52, 53, 54, 55, 56, 57, 58, 59, 60, 69, 74, 75, 78, 80, 81, 84, 88, 89, 142편)을 살펴본 결과, 표제어는 본문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임을 알았다.	
Sohn, Se-Hoon Understanding the Addition of the Psalm-headings in the Psalms	92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¹⁾

손 세훈 | 그리스도대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대다수 구약학자들은 시편에 나타난 표제어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²⁾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제어가 본문보다 후기에 편집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편 본문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³⁾ 둘째, 칠십인 역, 탈군 역, 그리고 랍비 미드라쉬가 그 역사적 정황을 제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간혹 마소라 본문에 나타난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⁴⁾ 이것은 시편의 표제어가 본문의 원래 상황을

1) 이 논문은 2009년도 그리스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역사적으로 교부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시편 표제어를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표제어에 언급된 저자와 본문에 나타난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라. R. T. Beckwith, "The Early History of the Psalter [table]," *TB* 46 (1995), 1-27쪽.

3) B. S. Child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SS* 16 (1971), 137쪽; E. Slomovie,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ZAW* 3 (1979), 350-351쪽.

4) E. Slomovie, 원글.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주전 5세기경에 헬라어가 구약성서의 언어 형성에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당시에 아람어는 히브리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의 상황이 시편 표제어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표제어가 헬라어나 아람어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⁵⁾ 둘째, 고대 히브리어가 이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비교 신 33: 2에 나타난 ‘불같은’^(אֵשׁ)).⁶⁾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에서 표제어가 나타나지 않는 소위 ‘익명의 시’는 총 34편뿐이다.⁷⁾ 베크워드(R. T. Beckwith)는 몇몇의 시편들이 익명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설명하고 있다. 시 1편은 전체 시편을 소개하는 서언적인 것, 시 2편은 시편이 다윗의 글(특별히 제 1권)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의 신정(theocracy)을 말하고자 하는 것, 시 10편은 시 9편의 연속이며, 시 33편은 시 32편과 시 34편의 내용과 유사한 주제에 속한 것, 시 43편은 시 42편의 연속이며, 시 66편과 시 67편은 각각 ‘시’와 ‘노래’로 묘사되면서 앞(65편) 뒤(시 68편)의 시들이 다윗의 시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시 71편은 시 70편의 주제와 연속된 것 등을 이유로 말하고 있다.⁸⁾

1) 연구 목적

본 글의 목적은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시편 본문에 각각의 표제어를 첨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시편 본문과 표제어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가령 단 3: 5의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에서 ‘삼현금과 양금’ 등은 이스라엘의 제의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동방에서 사용된 것들이다. J. E. Goldingay, Daniel (WBC 30), (Dallas, Texas: Word Books, 1983), 65쪽과 70쪽.

6) J. F. Sawyer, “An Analysis of the Context and Meaning of the Psalm-headings,” W. McKane(ed.), Glasgow University Oriental Society, (n.p.: Glasgow, 1970), 26쪽.

7) 시 1, 2, 10, 33, 43, 71, 91, 93, 94, 95, 96, 97, 99, 104, 105, 106, 107,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35, 136, 137, 146, 147, 148, 149, 150편. 히브리 성서(MT)에서도 개역 성서와 동일한 표제어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히브리 성서에서는 표제가 최초의 한 절이나 두 절(가령, 개역 성서에서 51편의 표제어 내용)로 표기되어 있다. 개역개정 성서의 98편에서 표제어가 ‘시’라고 짧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도 히브리 성서에서는 처음 한 절로 나타나고 있다.

8) R. T. Beckwith, 율글, 1-27쪽을 참조할 것.

2) 연구 방법

기본적으로 역사비평적 방법을 통하여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표제어에 등장하는 곡조와 역사적 배경을 본문의 배경과 비교 분석하여 편집자의 표제어 첨가 의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의’ 시

표제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총 100회로 ‘~의 시’로 인명이 나타난다. 이 때 ‘다윗의 시’로 73회, ‘아삽의 시’로 12회, ‘고라의 자손’으로 10회, ‘솔로몬의 시’로 2회(시 72, 127편), 그리고 헤만(시 88편), 에단(시 89편), 모세(시 90편)로 각각 한 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명을 분류하면, 제 1권(시 1-41편)은 다윗 중심으로, 제 2권(시 42-72편)과 제 3권(시 73-89)은 다윗과 레위인 중심으로, 제 4권(시 90-106편)과 5권(시 107-150)은 다윗과 다른 시인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히브리어에서 ‘~의 시’에 나타나고 있는 ‘의’는 전치사 ל(레)로 표기되어 있다. 이 때 ל(레)의 문자적 의미는 ‘~에게,’ ‘~위하여’이다. 따라서 시편 표제어에 나타난 레(ל)를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의’보다는 ‘~에게’ 또는 ‘위하여’로 해석해야 한다. 이 단어는 분리되는 않는 전치사(불분리 전치사)로서 지배하는 단어의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다.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사람의 이름 앞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가령 시 4: 1), 때로는 직책(가령 시 4: 1)이나 집단의 사람들(가령 시 42: 1), 또는 ‘~할 때 사용을 위해서’(가령 시 92: 1)나 ‘~에 의하여 사용되기 위한’ 것 등을 의미한다. 다후드(M. Dahood)는 라스 샤므라(Ras Shamra) 문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ל(레)를 ‘to,’ ‘for,’ ‘from’로 이해했으나, 그 문서가 발견된 후 ל(레)에는 이런 의미 외에도 ‘no,’ ‘not’ 그리고 ‘강조’나 ‘호격부사’의 뜻도 있다고 주장하였다.⁹⁾ 이런 점에서 ל(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제어에 인명이 나타났다고 하여서 그 인명을 저자로 볼 수 없다. 표제어에 인명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73개의 소위 ‘다윗의 시’는 다윗의 작품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¹⁰⁾ ל(레)의 문자적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의 시’가 다윗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제어가

9) M. Dahood, "Vocative Lamedh in the Psalter," VT 16 (1966), 299-311쪽.

10) 칠십인 역에서는 시 151편을 포함하여 총 85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보다 후기에 편집되었으며, 그 최종 편집된 삶의 자리(Sitz im Leben)가 역대기 사가와 마카비 시대 사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¹¹⁾ 다윗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차일즈(B. S. Childs)는 표제어가 시편이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고 보면서, 표제어가 주석역사(history of exegesis)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 즉 시편 표제어가 첨가될 당시 편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시 3편)

1)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표제어는 삼하 15 - 17장에 나타나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시에서 시인이 야훼께서 성산(聖山)에서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시 3: 4) 표제어의 상황이 본시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성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솔로몬에 의하여 완공되었기 때문이다.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본시가 다윗과 무관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표제어가 다윗과 관련하여 등장한 이유는 표제어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삼하 15 - 17장과 본 시의 본문에 '저주 문구'와 '명예가 실추된 절망의 모습', 그리고 '고난이 해결되는 모습'이 공히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주 문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시 3: 2).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삼하 16: 8).

11) Sawyer, 윗글, 26쪽.

12) Brevard S. Childs, 윗글.

시 3편 2절에서 원수들이 시인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다. 삼하 16장 8절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그의 나라가 야훼에 의하여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저주하고 있다.

명예가 실추된 절망의 모습: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시니이다(시 3: 3).

다윗이 감람 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삼하 15: 30).

고난이 해결되는 모습: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시 3: 7)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삼하 18: 32)

시 3편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해달라고 야훼께 간청하고 있으며, 삼하 15장 30절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벗어나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상호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시의 후반부에 시인의 고난이 야훼에 의하여 해결되었으며(시 3: 7), 삼하 18장에서도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그의 반역이 무위로 끝났다는 점에서 시인이나 다윗의 고난이 공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다윗의 식가온,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시 7편)

1) 식가온(יִשְׁגָּוֹן)¹³⁾

이 단어는 동사 שָׁגַג(샤가)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샤가'는 '고함치다,' '미치다'(삼상 21: 14-15; 참조 신 28: 15-68),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다'(삼상 21: 13; 참조. 왕하 9: 11; 렘 29: 26; 호 9: 7)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식가온'은 시 7편 외에 구약성서에서 세 번 나타나고 있다. 두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거나(신 28: 28)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13)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에서는 '식가온' 대신 '시'라고 표기되어 있다.

자들에게 내려지는 경우(속 12: 4)에 사용되었다. 다른 한 곳은 예후 왕이 광기에 차서 병거를 모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왕하 9: 20). 이런 맥락에서 구약성서에서 '식가온'은 '미침,' '광기'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동일한 의미로 시 7편의 표제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문자적인 면에서, 고대 아카드語에서 이 단어와 동일한 어근으로 추정되는 '세구'(šegû)의 뜻이 '부르짖다,' '탄식하다'로, 에디오피語에서는 '미치다'(찬게아. zangé'a)로, 아랍語에서는 '속삭이다,' '(숨이 있는 산문 형식으로) 낭송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¹⁴⁾ 시 7편이 탄식시라는 점과 산문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식가온의 히브리적 의미와 근동어 사이에 일치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 7편 외에 시편 탄원시 어디에도 식가온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식가온의 뜻이 탄식과 관련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식가온이 산문시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합 3장을 통하여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합 3장의 내용이 서사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형식면에서 정형화된 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산문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가온은 산문시 형식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단어가 멜로디와 깊은 관련이 있다.¹⁵⁾ 합 3장 19절에는, 합 3장의 노래가 "지휘하는 사람(인도자)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합 3장 1절에서는 "시기오눗(שִׁיאוֹנֹת)에 맞춘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식가온은 어떤 멜로디를 연상케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 7편의 표제어에 나타난 식가온의 문자적 의미는 '음률과 관련 있는 산문시'를 가리키는 것 같다.

2) 베나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성서에서 베나민인 구시에 관하여 찾아볼 수 없지만, 사울이 속한 베나민 지파는 사울의 충성스러운 지파였을 것이다. 탈무드는 구스가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⁶⁾ 혹자는 구시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저주를 퍼부었던 베나민인 시므이를 복합적으로 상징

14) Chou-Wee Pan, "שִׁיאוֹנֹת," NIDOTE 4, 463쪽.

15) Keil-Delitzsch, *Psalms of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James Martin(tr.), (Michigan: Grand Rapids, 1982), 138쪽을 참조하라.

16) M. A. Cohen, *The Psalms of Simeon books the bible*, (London: The Soncino Press, 1971), 15쪽.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삼하 16: 5-14). 시므이는 ‘게라의 아들’이지만, 기스와 그의 관계가, 에 2장 5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르드개의 가계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드개는 베냐민 자손이며 기스의 증손이며 스므이의 손자며 야일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므이는 기스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 기스는 경멸적인 뜻으로 구스라고 불렀다. 이밖에도 구스는 함의 아들이며, 바벨왕이며, 니느웨를 건설한 니므롯의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다(창 10: 6-12).¹⁷⁾ 한편으로 구스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기도 한다(민 12: 1). 사울과 다윗이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사울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삼상 24 - 26장; 삼하 16: 5; 20: 1). 이런 점에서 구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윗과는 대립 각을 세웠던 인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베냐민 사람 구시’란 말은 다윗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3)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원수들은 ‘추적자’로 묘사되고(시 7: 1) 시인은 그 추적자들로부터(2절의 ‘사자 같이’) 쫓기고 있다. 크레이기(P. C. Craigie)는 추적자들의 정체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시인이 무죄한 자로서, 거짓 고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며, 원수의 거짓 고소와 함정을 추적자의 행위로 보고 있다.¹⁸⁾ 1절의 ‘쫓아오는 모든 자,’ 적극적인 하나님의 전쟁개입을 촉구하는 듯한 시 7편 6절의 ‘일어나사’(참조 민 10: 35) ‘깨소서’(참조 사 5: 12) 그리고 시 7편 10절의 ‘방패’ 등의 표현은 군사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시 7편 6절의 ‘하나님의 심판’과 7절과 8절의 ‘모든 민족 위에 좌정하신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 시 7편 11절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시 7편 15절의 ‘용덩이와 함정’ 등의 표현은 재판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시 7편 12절의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심이여”에서 군사적 상황보다는 윤리도덕과 관계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시의 시인이 군사적인 것보다는 송사에 빠져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표제

17) Beckwith, 윗글, 19쪽.

18) P. C. Craigie, *Psalms 1-50* (WBC 19), (Waco, Texas: Word Books, 1983), 100쪽.

여가 본시에 첨가된 가능성을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참조 신 28: 28; 속 12: 4), 또는 합 3장 처럼 단순히 산문적 멜로디를 연상케 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다윗의 시'라고 표기된 것으로 미루어 '다윗의 식가온'은 시의 특징, 즉 산문 시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는 시인이 처한 부정적인 고난 상황을 고려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시 8, 81, 84편)

1) 깃딧(גִּתִּית)

유대 전승은 깃딧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탈군은 깃딧이 가트(Gath)라는 도시와 관련이 있으며, 팔레스타인에 기원을 둔 악기나 멜로디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 미드라쉬는 '포도주를 짜는 틀'인 히브리어 גַּת(가트)와 관련 있으며, 이 뜻에서 기원으로 하여 '포도 수확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발전했다고 한다.¹⁹⁾ 음악적 의미와 포도 수확의 의미를 종합하면, 깃딧은 "포도즙 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포도주를 밟으면서 부르는 소위 노동요(勞動謠)로 추정할 수 있다(참조 사 16: 10; 렘 25: 30).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시 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나타난다. 본 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찬양 시로서, 그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창조 사상이 포로 시기와 포로 후기에 왕성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본 시의 저작 시기를 추정할 뿐이다.²⁰⁾ 특별히 시 8편 1절과 마지막 9절의 "야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시인의 고백에서, 본시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야훼의 창조 작품에 대한 시인의 감탄과 경외심을 엿볼 수 있다.²¹⁾

시 81편에서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나타난다. 본 시는 축제의 시로서, 앤더슨(B. W. Anderson)은 본 시가 수 24장에 나타난 계약 갱신의 제의문과 밀접하게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²⁾

19) Cohen, 윗책, 18쪽; 요하킴 크라우스는 깃딧을 멜로디로 보고 있다. H. J. Kraus, *Psalms 1-59*, H. C. Oswald(tr.),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31쪽.

20) Craigie, 윗책, 106쪽.

21) 손 세훈, 「갈릴리에서 읽는 시편」, (서울: 그리스도대학교 출판국, 2005), 40쪽.

테이트(M. E. Tate)는 그 동안 학자들이 ‘아삽의 시’로 표기된 소위 아삽 시편들이 북 왕조 이스라엘의 예배 집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만,²³⁾ 그 현재적 형태와 아삽 시편 모음에서의 위치(시 50, 73-83편)는 포로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배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²⁴⁾ 표제어에 나타난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다윗 시대의 궁중 악사였다(대상 6: 31, 39; 대하 29: 30). 이런 점에서 본시에 표제어에 ‘아삽의 시’가 첨가된 것은 본 시를 제의와 관련하여 이해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 81편 3절의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는 나팔절과 장막절을 말하고 있다. ‘초하루’는 유대력 7월(티쉬리월 9-10월) 1일에 거행되는 나팔절을 의미하며 가을 농작물을 거두게 되는 추수절의 시작임을 말한다(레 23: 24; 민 29: 1-2). 그리고 ‘보름’은 장막절을 의미하는데, 장막절은 유대력 7월(티쉬리월 9-10월)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되는 것으로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며(레 23: 34, 39-43), 가나안 정착 후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수장절로도 불렸다(참조. 출 23: 16; 34: 22). 그러므로 장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명절이며, 장막절은 유목 상황을, 수장절은 농경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추수를 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 장막절이 가장 기쁜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시 84편에서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나타난다. 본 시는 순례자의 시로서, 예루살렘에서의 축제 예배(가령 시 42, 43편)와 가을 축제에 대한 예배자들의 순례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저작 시기는 포로 이후의 경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²⁵⁾ 표제어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에서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민 16장). 구약성서에서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대상 9: 19; 26: 1, 19), ‘빵 굽는 자’(대상 9: 31), ‘성전 가수’(대하 20: 1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표제어에 ‘고라 자손’이 첨가된 것은 성전 제의와 관련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한 것과, 그들에게서 비롯되거나 재생되는 여러 시적 자료 전승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리고 시 84편 6절의 ‘이른 비’는 가을비로

22) B. W. Anderson, 「시편의 깊은 세계」(노 회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49쪽.

23) 가령, 다후드는 시 81편이 북이스라엘의 제의에 기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 Dahood, *Psalms I-II* (AB), (New York: Doubleday, 1982), 263쪽을 참조하라.

24) M. E. Tate, *Psalms 51-100* (WBC 20), (Dallas, Texas: Word Books, 1983), 322쪽.

25) 윗책, 355-356쪽.

서 장막절과 함께 나타나곤 한다(신 11: 14; 율 2: 23-24).

시 8, 81, 84편이 각각 창조 사역에 대한 찬양시와 축제시와 순례자의 시로서 각 시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배어 있다. 시 8편의 시인은 야훼가 창조한 요묘하고도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 81편의 시인은 기쁘게 노래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시 84: 1), 장막절(수장절)의 추수의 기쁨을(시 84: 3)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 84편의 시인은 성전에 거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으며 장막절(수장절)에 추수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표제어 깃딯은 기쁨을 담은 곡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²⁶⁾ 더 나아가 장막절(수장절)과 결합된 포도 수확을 위한 시(詩)에 붙여진 '포도주를 짜면서 (부른 노래임을)' 암시한다.²⁷⁾

6. 인도자를 따라 못랍벤에 맞춘 노래(시 9편)

1) 못랍벤(מִוְרָבֵן)

이 단어는 시 9편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개역 성서에서는 '못랍벤'으로 표기되었지만,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 단어가 מְלֻמְוֹת(알무트)와 לְבָנִי(랍벤)으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두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아들의 죽음'이다. 고대 유대 전통에서 랍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웃 나라의 통치자로 보고 있다.²⁸⁾ 바이저(A. Weiser)는 '못랍벤'을 '아들의 죽음'으로 해석하면서 그 의미가 모호하며 어떤 노래 풍으로 이해하고 있다.²⁹⁾ 못랍벤에 대하여 칠십인 역은 ὑπὲρ τὸν κρυφίον τοῦ υἱοῦ로, 불가타 역은 pro occultis filii로 번역하여, 못랍벤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여 옮겨놓았다. 루터(M. Luther)는 못랍벤을 '아름다운(아마도 백합과 같은) 청년'으로 이해하였다. 탈군 역은 לְבָנִי(벤)을 대적자 골리앗으로 보고 있으며, 랍비 문헌은 לְבָנִי(랍벤)을 נַבְל, 즉 나발로 간주하여 못랍벤을 '나발의 죽음'으로 번역하고 있다. 헝스텐베르그(Hengstenberg)는 랍비 문헌의 견해를 더욱 확장하여, לְבָנִי를 나발과 같은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명칭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반대로 못랍벤이 곡조나 멜로디와 같은 대중화된 어떤 노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³⁰⁾ 시 46편 1절의 표제어에는 לַח(알)과 מוֹמִי(모

26) Keil-Delitzsch, *빛책*, 148쪽을 참조하라.

27) O' Connell, R. H., "מִוְרָבֵן," *NIDOTE* 1, 904쪽.

28) Cohen, *빛책*, 20쪽.

29) A. Weiser, *The Psalms* (OTL), H. Hartwell(tr.), (London: SCM Press, 1982), 146-148쪽.

트)가 한 단어로 나타나면서(개역성서에는 ‘알라뭇’) 여성의 음성인 최고 음, 즉 소프라노를 뜻하고 있다.³¹⁾ 미드라쉬에 의하면, ‘뭇랍벤’은 한 단어로서 소녀나 젊은 레위인들이 ‘목청을 높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³²⁾ 시 48편 마지막 절인 시 48편 35절에서 ‘죽을 때까지’(מָוֹת - וְ)라는 표현에 미루어 단순히 대중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³³⁾ 유대 주석가들은 קַבֵּל(랍벤)을 대상 15장 18절에 나타난 음악가 קַבֵּל(벤)으로 보고 있다.³⁴⁾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표제어와 본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의 범위로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대두된다. 왜냐하면 시 9편과 시 10편이 연속된 하나의 시라는 주장과 각각 별개의 시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³⁵⁾ 본 글에서는 시 9, 10편을 한편의 시로 간주하여 표제어와 본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뭇랍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 9/10편이 개인 탄원시로 간주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궁켈과 바움가르트너³⁶⁾). 그러나 비록 시 9편에서 찬양 주제가 먼저 등장하지만 시 9편과 시 10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탄식 주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탄원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포러³⁷⁾와 앤더슨³⁸⁾). 이러한 맥락에서

30) Keil-Delitzsch, 윗책, 159-160쪽.

31) Craigie, 윗책, 114, 342쪽. 크레이기는 시 46편의 표제어에 나타난 알라뭇과 동일어로 추정하고 있다.

32) A. Tobias, "On the Musical Instruments in Psalms," *Jewish Bible Quarterly* 23 (1995), 54쪽.

33) Kraus, 윗책., 31쪽을 참조할 것.

34) Keil-Delitzsch, 윗책, 160쪽.

35) 크레이기는 시 9편과 시 10편이 본래 한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상세히 말하고 있다. 첫째, 비록 불분명하지만 시 9편과 시 10편이 연속된 답관체 형식을 띠고 있다. 둘째,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은 두 시를 한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시 10편에는 표제어가 없다. 넷째, 두 편의 시에서 독특한 용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령, 환난 때(시 9: 9; 10: 1), 가난한 자(시 9: 12, 18; 10: 2, 9, 17), 인생(시 9: 19; 10: 18), 압제 당하는 자(시 9: 9; 10: 18),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관계 대명사 וְ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시 9: 15; 10: 2).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원래의 본문은 감사 주제와 탄식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진 단일한 본문이었다가 후에 두 시로 나누어진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Craigie, 윗책, 116-117쪽.

36) W. Baumgartner, *Jeremiah's Poems of Lament*, D. E. Orton(tr.), (GA: Almond Press, 1987), 19쪽.

37) G. Forer, *Introduction to the O.T.*, Green David(tr.), (London: S. P. K, 1970), 285-293쪽.

38) B. W. Anderson, *Out of the Depths-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Philadelphia: The

랍벤을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웃 나라의 통치자(가령, 골리앗)나 다윗에게 인색했던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상징적 용어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비록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시 9편 1-11 절에서 나타난다고 하여도, 나머지 부분에 나타나는 탄식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못랍벤이 탄원을 중심으로 한 전체 내용에 표제어가 첨부되었다고 볼 때, 못랍벤은 슬픔을 띤 어떤 곡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 46편 1절의 알라뭇의 뜻과 미드라쉬의 해석을 더한다면, 못랍벤은 절규를 담은 고음의 어떤 곡조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7. 믹담(시 16, 56, 57, 58, 59, 60편)

1) 믹담(מִקְדָּם)시

탈무드에서는 믹담이 '기록된 문서'를 가리키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풍자시'(epigram)를 지칭하며, 아킬라(Aquila)와 시마커스(Symmachus)는 다윗에 대한 별칭으로서 **מִקְדָּם**(믹/겸손한)과 **מִקְדָּם**(믹/완전한)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⁹⁾ 모빙켈(Mowinkel)은 아카드語 카타무(katamu)가 '덮다'(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착안하여 믹담을 '대속하다'라는 뜻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투어네이(R. Tournay)는 믹담을 '비밀 기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H. J. Kraus)는 믹담의 어근을 **מִקְדָּם**으로 간주하여, 그 뜻이 '숨기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믹담은 공개적으로 발생한 시가 아니라 비밀스럽게 전승된 시라고 본다. 칠십인역과 탈군역은 믹담을 '기둥에 새겨진' 것을 의미한다.⁴⁰⁾ 렘 2장 22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씻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새겨진 얼룩'과 같은 **מִקְדָּם**이라고 불렀다.⁴¹⁾ 이밖에도 일부 랍비들은 믹담의 어근을 '황금'을 가리키는 **מִקְדָּם**으로 이해하여 믹담을 '황금시'로 간주하기도 하였다.⁴²⁾

2) 요넳 엘렘 르호김(מִקְדָּם מְלֶכֶת יוֹנָתָן)에 맞춘 노래(시 56편)

Westminster Press, 1974), 54-56쪽.

39) Sawyer, 윗글, 33쪽.

40) Kraus, 윗책, 24-25쪽; Craigie, 윗책, 154쪽을 참조하라.

41) Keil-Delitzsch, 윗책, 218쪽.

42) Craigie, 윗책, 154쪽.

יָנֹט(요냏)은 암 비둘기를 가리키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אַנְה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אַנְה는 ‘탄식’을 뜻한다.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나(사 38: 14; 겔 7: 16) 구원을 바라는 신음소리를 상징한다(사 59: 11; 60: 8).⁴³⁾ 호 7장 11절은 앗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비둘기처럼 오락가락 하는 에브라임을 빗대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경우에서 시 56편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요냏은 전자의 두 개와 일맥상통한 것 같다. אֵלֶם(엘렘)은 ‘침묵’을 가리키며, רָחֹק(르호김)은 동사 רָחַק(라하크)의 형용사, 비교급, 복수 형태로서, ‘멀리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요냏 엘렘 르호김을 문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침묵(무언)의 암 비둘기”로 직역할 수 있다. 칠십인 역은 “성소(거룩한 자/거룩한 곳들)로부터 멀리 옮겨진 백성들에 관하여”로, 탈군 역은 “그들의 성읍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을 때는 울지 않는 비둘기로 비유되다가 다시 돌아와 만유의 주를 찬양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하여”로 해석하고 있다. 두 역서는 비둘기를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⁴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시 56편 8절에 의하면, 시인은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 자이다. 이러한 표현은 본문의 시인의 처지와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냏 엘렘 르호김은 “분향(이스라엘)을 떠나 정처 없이 멀리 떠돌아다니는 (비둘기 같은) 슬픈 모습”을 의미하는 듯하다.

3) 알다스헛(אֲדַסְחֵת-לֹא)에 맞춘 노래(시 57, 58, 59편)

알다스헛은 לֹא(알)과 אֲדַסְחֵת(다스헛)이 함께 표기된 것이다. 두 단어를 직역하면, ‘멸망하지 않다’는 것이다(참조 신 9: 26; 삼상 26: 9; 사 65: 8). 이 때 알은 부정(not)을 나타내며, 다스헛은 ‘파멸’을 가리킨다. 다스헛의 어근인 אֲדַסְחֵת는 손상이나 사지절단 같은 개념과 아울러 폐허나 약탈의 의미도 갖고 있다(참조 신 20: 19). 사 65장 8절의 포도 수확 때 부르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이 말은 당시 잘 알려진 노랫말이었음을 추정하게 한다.⁴⁵⁾ 따라서 알다스헛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희망적인 노래임을 알 수 있다.

43) N. Kiuchi, “יָנֹט,” NIDOTE, 2, 425-426쪽.

44) Tate, 윗책, 65쪽.

45) Tate, 윗책, 73쪽.

4) 수산에돏(סוּשָׁן אֶדֶם)⁴⁶⁾에 맞춘 노래(시 60편)

수산에돏은 שֵׁן אֶדֶם(수산)과 증언, 증거, 법전을 가리키는 אֶדֶם(에돏)이 연계형으로 결합되어 있다. '수산'은 '백합 또는 장미'를 가리키며, אֶדֶם(소산님)⁴⁷⁾은 명사 '수산'(수산)의 복수형이다. 그러므로 수산에돏은 문자적으로 '증거의 백합'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아가서에서 기쁨에 넘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시 5: 13; 참조. 2: 1, 2; 4: 5; 6: 11). 호 14장 5절은 이스라엘이 "백합화(סוּשָׁן)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에돏은 기쁨과 관련된 일종의 희망의 곡조를 의미하는 것 같다.

5)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시 16, 56, 57, 58, 59, 60편의 표제어에 나타나는 믹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믹담시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믹담이 등장하는 시편 본문의 절수(節數)가 모두 11절에서 18절 사이로 짧게 구성되어 있다.

16편-11절	56편-14절	57편-12절	58편-12절	59편-18절	60편-14절
---------	---------	---------	---------	---------	---------

둘째, 이 시들이 모두 다윗과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시 16편과 58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편에 역사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다.⁴⁸⁾

편	표제어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
56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57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59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60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와서 에돏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명을 죽인 때에

셋째, 각 시에서 시인은 탄식을 하던 중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표

46) 시 45편에서는 '소산님'으로 시 80편에서는 '소산님에돏'로 나타나고 있다.

47) 시 45, 69편의 표제어를 참조하라.

48) J. F. Sawyer, 율글, 33쪽을 참조하라.

하고 있다.

편	내	용
16	간청(1절), 확신 (2-11).	
56	탄식(1-2절), 신뢰 (2-4절), 원수 고발(5-7절), 탄식(8절), 확신 (9절), 신뢰 와 찬양(10절), 감사와 확신 (11-13절).	
57	탄식(1-2절), 확신 (3절), 원수 고발과 간청(4-6절), 확신 과 찬양과 간청(7-11절).	
58	원수 고발(1-5절), 간청(6-9절), 확신 (10-11절).	
59	탄식과 간청(1-5절), 원수 고발(6-7절), 확신 (8-10절), 간청(11-14절), 신뢰 와 찬양 (15-17절).	
60	간청(1-2절), 불평(3절), 확신 과 간청(4-5절), 약속 회상(6-8절), 탄식과 간청(9-11절), 신뢰 (12절).	

일부 본문에서 “내가 말했다”(מַהֲרָא :16 א), “그 때에 사람이 말할 것이다”(מַהֲרָאִי 58: 11), “하나님이 말씀하셨다”(מַהֲרָא 60: 6)라는 단어와 함께 반복적 내용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⁴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므담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편집자가 이상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므담시로 분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탄식 주제가 므담시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표제어는 독자들에게 과거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보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집자는 므담시를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을 주문하는 듯하다.

8. 아엘렛사할에 맞춘 노래(시 22편)

1) 아엘렛사할

이 단어는 시 22편에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암 사슴’을 가리키는 אֵלֶּי?

49) Keil-Delitzsch, 윗책, 218쪽. 참고로 왕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한 후 쓴, 소위 히스기야詩(사 38: 10-20)를 쓸 때, 선행절 시 38편 9절에 “히스기야가 ... 기록한 글(מִקְרָא)”로 시작하고 있다. 이 때 델리취는 מִקְרָא와 מִקְרָא를 동의어로 보고 있다.

(아이예레트)와 ‘동틀 때’를 의미하는 אֶשְׁחָר(앗샤하르)가 합성된 말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아엘렛샤할은 ‘암 사슴이 동틀 때’로 직역할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사슴을 깨끗한 동물로 간주하고, 그 고기를 먹기도 하였으며(신 14: 5; 15: 22), 희생 제의의 제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אַי / אֵי (아이알/아이야라)와 동족어로 보이는 우가리트語 ‘ayl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희생 제의와 관계된 짐승을 가리키는 뜻도 있다.⁵⁰⁾ 구약성서에서 사슴은 문자적으로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창 49장 21절에 의하면, 암 사슴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동물로 비유하고 있다. 시 42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시 42: 1).⁵¹⁾ 사 35장 5-6절에 의하면, 사슴이 고침을 받는 모습으로, 시 18편 32절에 의하면, 전쟁의 용사로서 암 사슴의 (강한) 발을 비유적으로 들고 있다. 랍비들은 은유의 폭을 넓혀 ‘아엘렛샤할’은 새벽에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의 빛(여명)으로 간주하였다.⁵²⁾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본시는 ‘병자의 시’로서 그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 시 22편 1-2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간청이, 후반부 시 22편 22-31절은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구조 때문에 시 22편은 본래 두 시로 전승되다가 후기에 하나의 시로 편집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두 부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시의 전형적인 구조인 탄식과 간청,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시를 개인 탄원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반부에서 병자인 시인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을 하나님께 탄식과 간청을 하다가 후반부에 들어 찬양과 확신이 등장하는 분위기 변화는 시인의 병이 치유되었고 건강해졌음을 알려주는 신탁의 선언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특별히 시 22편 21절의 “내게 응답하시고”에

50) Craigie, 윗책, 196쪽; Kraus, 윗책, 30쪽.

51) 시 42편 시인의 영혼의 갈급함은 시 63편 시인의 고백에서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시 63: 1).

52) Moore, M. S., “אֵי,” *NIDOTE* 1, 380-398쪽.

서 ‘응답하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אָנָּן(아나)는 개인 탄원시에서 시인이 ‘부르짖을’(시 22: 2의 אָנָּן)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신탁의 선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다. 하나님의 반응, 즉 하나님의 응답은 시 22편 21절에서처럼 부르짖는 자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시 60: 5). 본 시의 시인이 부르짖는 일차적인 원인이 병이라고 했을 때,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시인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시의 표제어는 (병자의) 고난과 간청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제의적 배경을 지닌 어떤 곡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9. 마스길(시 32, 42, 44, 45, 52, 53, 54, 55, 74, 78, 88, 89, 142편)

1) 마스길(מָשָׁל)

시 32편의 표제어에 처음 등장하는 ‘마스길’(מָשָׁל)은 본 시의 시 32편 8절에서도 ‘가르치다’(שָׁלַל)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⁵³⁾ 또한 시 47편 7절에서 마스길은 ‘지혜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두 곳을 통하여 마스길을 ‘교훈의 시’ 또는 ‘지혜의 시’와 관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마스길이 표제어로 등장하는 총 13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시 32편과 시 78편 정도만 교훈 또는 지혜와 관련시킬 수 있을 뿐, 나머지 내용들은 ‘지혜’라는 의미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⁵⁴⁾ 크레이기는 ‘마스길’을 ‘묵상의 시,’ ‘이해의 시,’ ‘능숙한 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⁵⁵⁾ 델리취는 ‘마스길’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대하 30장 22절의 “(레위인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일(שָׁלַל)에 능숙한(מְשָׁלֵם)”이라는 표현에서 שָׁלַל(사칼)의 사역 능동형⁵⁶⁾을 들어, 그것을 ‘경건한 묵상’으로 이해하고 있다.⁵⁷⁾ 그러므로 마스길은 ‘지혜,’ ‘교훈,’ ‘이해’ 그리고 ‘경건한 묵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1) 사랑의 노래, 소산님⁵⁸⁾에 맞춘 노래(시 45편)

53) 시 32: 8에 나타나는 ‘사칼’(שָׁלַל)의 원래 뜻은 ‘현명하다,’ ‘이해하다’의 뜻을 갖고 있으며, 이 단어는 ‘통찰력’(렘 9: 23), ‘지혜’(잠 15: 24)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과 관련하여 신중한 자의 지혜 즉 ‘침묵하는 지혜’(잠 10: 19; 참조, 암 5: 13)를 가리키기도 한다.

54) Kraus, 윗책, 25쪽; Craigie, 윗책, 264쪽; Keil-Delitzsch 윗책, 394쪽.

55) Craigie, 윗책.

56) שָׁלַל의 사역능동형에는 ‘통찰력 있는(능숙한) 행동’ 또는 ‘헌신’의 뜻이 있다.

57) Keil-Delitzsch 윗책.

시 45편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왕의 결혼에 대한 노래'이며, 다른 하나는 '메시아 시'로 보는 경우이다. 시 45편 9-11절은 왕과 결혼하는 여인에게 혼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 45편 10절의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는 출가외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와 적응을 말하고 있다. 반면에 초대 교회에서는 이 시를 가리켜 '메시아 시'로 이해하였다. 가령, 시 45편 6절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영영하며"가 히 1장 8절의 내용과 일치한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메시아)이라는 신학적 관점을 첨가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시 45편 16절의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⁵⁹⁾ 비록 본시에 대하여 메시아 시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비약일 수 있으나, '사랑의 노래'이든 '메시아 시'이든 본시가 기쁨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표제어의 '사랑의 노래'와 '소산님에 맞춘 노래'와 잘 부합되며, 덧붙여서 '왕비에 대한 혼계'(시 45: 10)는 표제어 마스길이 갖는 '교훈'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에돔인 도역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시 52편)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히멜렉의 집에 갔을 때, 이를 목격한 사울의 목자장 에돔사람 도역(삼상 21: 7)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밀고한 것을 말하고 있다(삼상 22: 9-10). 본시의 내용에서 도역의 밀고를 마치 '간사한 혀'(시 52: 2, 4)로 이해할 수 있다. 도역이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점에서 그가 어느 정도 재물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있다(시 45: 7). 그러나 시 45편 8절의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사울과 다윗의 상황으로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표제가 첨가된 것은 역사적으로 도역의 간사한 행위(밀고)가 본 시를 이해하는 데 가장 근접한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58) 본 글의 7. 4)의 '수산에돔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59) Craigie, 윗책, 340쪽.

(3)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
나이까 하던 때에(시 54편)

본 시의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 광야 산골에 숨어 있던 중에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다(삼상 23: 19 이하;
참조. 26: 1). 3절의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니”라는 내용과 표
제어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을 때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색하는)’ 하는 모습과 유사함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시 54편 1, 6절의 ‘하
나님의 이름’이라는 신명기적 표현과 시 54편 3a절의 ‘낮선 자’라는 묘사는
다윗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가 본 시에 이상과
같은 표제어를 첨가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울로 인한 다윗의 고난과 하나님
의 구원, 그리고 원수 사울의 멸망(시 54: 7) 등이 독자들에게 마스길(교
훈, 이해, 묵상)로 다가갈 수 있음을 고려한 것 같다.

10. 소산님에 맞춘 노래(시 45, 69, 60편 수산에뒸⁶⁰⁾, 80편 소산님에뒸⁶¹⁾)

1) 소산님(סוּסַנִּים)⁶²⁾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1) 고라 자손의 마스길,⁶³⁾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시
45편; 참조 69편)⁶⁴⁾

(2)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⁶⁵⁾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
짜기에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시 60편)

표제어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죽인 후 그 명성을 떨친 것
을 말하고 있다(삼하 8: 13-14; 대하 18: 12-13). 특별히 삼하 8장은 다
윗이 주변국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람 나하라임을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진격했
던 것을 염두에 둔 이해로 보인다(삼하 8: 3과 대상 19: 6). 아람 소바는
레바논 동쪽에 위치한 아람 국가를 의미한다. 맥카터(McCarter)는 편집자

60) 본 글의 7. 4)의 ‘수산에뒸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61) 본 글의 7. 4)의 ‘수산에뒸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62) 본 글의 7. 4)의 ‘수산에뒸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63) 본 글의 9. 1)의 ‘마스길’을 참조할 것.

64) 본 글의 9. 1). (2)의 ‘사랑의 노래, 소산님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65) 본 글의 7. 1)의 ‘믹담시’를 참조할 것.

가 삼하 8장 13절에 대한 어떤 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에 의하여 “다윗이 돌아왔을 때(יָבֹא), 스루야의 아들이 에돔을 쳤다”라고 진술했으며, 스루야의 아들 중 요압이 가장 유명하였기에 스루야의 아들 대신 요압으로 표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⁶⁶⁾ “에돔인 만 이 천명을 죽였다”는 진술은 에돔에 대한 깊은 원한을 보여주는 것이다(참조 오바다). 표제어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그 역사적 자리는 포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시 60: 1-3). 본 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시에서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과 블레셋까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표제어에서 에돔에 대한 원한을 표현한 것은 유다의 불행(멸망)을 악용한 에돔의 행위에 대한 저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시인이 신뢰와 확신을 갖는 모습에서(시 60: 12), 편집자는 표제어를 통하여 에돔에 대한 저주와 함께 유다의 부흥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던 것 같다.

11. 요넳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시 56편)

1) 요넳 엘렘 르호김(יָבֹאֵלֶם לְרוּחִים)에 맞춘 노래⁶⁷⁾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내용을 말하고 있다(삼하 21: 10-15). 크레이기는 이 내용과 본 시의 내용에서 두 가지 히브리적 언어유희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것은 **לָלַךְ**(하탈)이 시 59편 4, 10 절에서는 ‘찬양하다’(לָלַךְ)로, 삼상 21장 14절에서는 ‘미친 체 하다’(לָלַךְ)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⁶⁸⁾ 또한 ‘두려워하다’를 뜻하는 **אָרַךְ**(아레)가 본 시의 시 56편 3, 4, 11절에서, 그리고 삼상 21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⁶⁹⁾ 표제어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삼상 22장 1절에서 다윗이 가드로부터 도망 나왔다는 묘사에서 설득력이 있다. 표제어의 ‘요넳 엘렘 르호김’은 표제어의 다윗의 숨어 다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묘사인 것 같다. 이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66) P. Kyel McCarter, Jr., *2 Samuel* (AB). (New York: Doubleday, 1982), 246쪽.

67) 본 글의 6. 2)의 ‘요넳 엘렘 르호김’을 참조할 것.

68) **לָלַךְ**(하탈)에는 ‘찬양하다’ 뜻 외에도 ‘미친체 하다’는 의미도 있다.

69) Craigie, *윗책*, 69쪽.

볼 때, 본 시는 다윗의 암울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치려는 자’(시 56: 1, 5), ‘생명을 엿보는 자’(시 56: 6), ‘유리하는 모습’(시 56: 8)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12. 알다스헛에 맞춘 노래(시 57, 58, 59, 75편)

1) 알다스헛(אֲדַסְחֵת-לֵא) ⁷⁰⁾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1)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시 57편)

여기서 굴은 아들람 굴일 가능성이 높다(삼상 22: 1). 그 이유는 앞의 시 56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힌 때를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곳에서 도망하여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아들람 굴이기 때문이다. 편집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것과(56편 표제어) 그들로부터의 도망한 역사적인 사건을(시 57편 표제어) 고려하여 표제어를 의도적으로 연속 배열한 것 같다. 시 56편과 마찬가지로, 본 시도 원수들의 횡포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고 있다. 특별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사자 중에 있으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며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고백하고 있다. 개인 탄원시에서도 원수를 ‘사자’로 비유할 때, 원수의 힘이 막강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은, 원수가 시인을 괴롭히는 장면인 “사자처럼 시인을 찢다”(시 7: 2; 17: 12a; 22: 13; 참조 22: 21) 또는 “사자가 은밀하게 먹이를 찾듯이 시인을 기다리다”(시 10: 9; 17: 12b)라는 묘사에서 잘 나타난다. 편집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은 상황과 이상과 같은 본 시의 내용과 연결시켜 독자들이 읽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2)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시 59편)

표제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낸 사건을 말한다(삼상 19: 11). 삼상 19장과 본 시에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삼상 19장 4절에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에 항의하고 있다. 본 시 시 57편 3, 4절에 의하면,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참조. 삼상 24: 11). ‘개’가 다윗을 쫓는 원수로

70) 본 글의 6. 3)의 ‘알다스헛’을 참조할 것.

등장하며(삼상 24: 14), 본 시에서는 시인의 원수로 나타나고 있다(시 57: 5, 14). 구약성서에서 사람을 '개'라고 지칭할 때, 그것은 '경멸'(참조 신 23: 18; 삼상 17: 43)이나 '사나움'(렘 15: 3)을 의미하며, 이 때 사나움은 상대방을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한다(참조 시 59: 6). 이밖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울의 행위(삼상 19: 5)와 본 시에서 시인의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 등에서 편집자가 표제어를 첨가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13. 나가는 말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에 나타난 표제어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표제어가 후기에 편집되었으며, 다른 역본들도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제각기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총 116편의 시에 표제어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비록 표제어가 후기에 첨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기존 본문에 대한 당시 편집자의 신학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편집자는 독자들이 표제어를 통하여 본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편의 표제어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특별히 인물이나 역사적 정황이 등장하는 표제어는, 차일즈가 말했듯이, 독자들에게 하나의 주석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제어에 등장한 곡조와 인물, 그리고 역사적 정황은 본문의 시인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령, 시 3, 7, 52, 57, 59, 60편) 귀중한 자료임을 알았다. 또한 표제어 연구를 통하여, 편집자가 독자들에게 시편 본문을 어떻게 읽기를 바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표제어는 가장 오래된 시편 주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제어의 곡조에서 음악적 요소(7, 8, 9, 81, 84편)와 의미적 요소(22, 45, 56, 57, 58, 59, 60, 69, 75, 80편)가 표제어에 나타난 인물과 역사적 정황에서 회화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7, 52, 54, 56, 57, 59, 60편).

14. 참고문헌

김 이곤, 「구약성서의 고난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_____, “탄식시,” 「오늘의 시편 연구」(문 회석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김 정준, 「이스라엘 시인정신」(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손 세훈, 「갈릴리에서 읽는 시편」(서울: 그리스도대학교 출판국, 2005).
- _____, “시편 개인탄원시 이해,” 「구약논단」 제15집(2003).
- 왕 대일, “시편의 신학-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제32집(2009).
- 유 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제32집(2009).
- Alexander, T., “On the Musical Instruments in Psalms,” *Jewish Bible Quarterly* 23 (1995), 54쪽.
- Allen, L. C., “**רִיבִּי**,” *TDOT* 4 (1980), 93-98쪽.
- _____, *Psalms 101-150* (WBC 21), (Waco, Texas: Word Books, 1983).
- Alter, R., “Psalms,” R. Alter/F. Kermode(ed.),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 Press, 1987), 244-261쪽.
- Anderson, 「시편의 깊은 세계」(노 희원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49쪽. 원제는 Anderson, B. W., *Out of the Depths-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 Anderson, R. D. Jr., “The Division and Order of the Psalms,” *WTJ* 56 (1994), 219-241쪽.
- Baumgartner, W., *Jeremiah's Poems of Lament*, D. E. Orton(tr.), (GA: Almond Press, 1987).
- Beckwith, R. T., “The Early History of the Psalter [table],” *TB* 46 (1995), 1-27쪽.
- Birkeland, H., *The Evildoers in the Psalm* (Oslo: J. Dybwaed, 1955).
- Childs, B. 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SS* 16(1971), 137-150쪽.
- Chou-Wee Pan, “**רִיבִּי**,” *NIDOTE* 4 (1984), 46쪽.
- Cohen, M. A., *The Psalms Soncino books of the bible*, (London: The Soncino Press, 1971).
- Craigie, P. C., *Psalms 1-50* (WBC 19), (Waco, Texas: Word Books, 1983).
- Dahood, M., *Psalms I-II* (AB), (New York: Doubleday, 1982).
- _____, “Vocative Lamedh in the Psalter,” *VT* 16 (1966), 299-311쪽.
- Eaton, J. H., “The Psalms and Israelite Worship,” G. W. Anderson(ed.), *Tradition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79).
- _____, “Some Questions of Philology and Exegesis in the Psalms,” *JTS* 19 (1968), 603-609쪽.
- Goldingay, J. E., *Daniel* (WBC 30), (Dallas, Texas: Word Books, 1983).
- Howard, D. M., “Editorial Activity in the Psalter: A State of the Field Survey,” *WW* 9 (1989), 274-285쪽.

- Kapelrud, A. S., "Tradition and Worship: the Role of the Cult in Tradition Formation and Transmission," D. Knight(ed.), *Tradition and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 Keil-Delitzsch, *Psalms of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J. Martin(tr.), (Michigan: Grand Rapids, 1982).
- Kleer/Steins, "שִׁיר," *TDOT* 14 (2004), 614-644쪽.
- Kraus, H. J., *Psalms 1-59*, H. C. Oswald(tr.),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 Kiuchi, N., "יְהִי," *NIDOTE*, 2 (1997), 425-426쪽.
- McCarter, P., Kyle Jr., *2 Samuel* (AB), (New York: Doubleday, 1982).
- Moore, M. S., "אָזְ," *NIDOTE* 1 (1997), 380-398쪽.
- O'Connell, R. H., "יְהִי," *NIDOTE* 1 (1997), 904쪽.
- Reed, W. L., "Symbolism and the Theology of the Psalms," *College of the Bible Quarterly* 37 (1960), 35-43쪽.
- Sawyer, J. F., "An Analysis of the Context and Meaning of the Psalm-headings," W. McKane(ed.), *Glasgow University Oriental Society*, (n.p.: Glasgow, 1970).
- Slomovic, E.,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ZAW* 3 (1979).
- Tate, M. E., *Psalms 51-100* (WBC 20), (Dallas, Texas: Word Books, 1983).
- Weiser, A., *The Psalms* (OTL), H. Hartwell(tr.), (London: SCM Press, 1982).

검색어

곡조

시인의 정황

시편

시편 표제어

역사적 정황

투고일: 2010년 3월 11일

심사일: 2010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3일

Understanding the Addition of the Psalm-headings in the Psalms

Se-Hoon Sohn,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Christian University

There are several distinguishable elements in the Psalm-headings. Some are relatively easy to define, while others get steadily more obscure. Psalms are not only poetical but musical. Several musical instruments are mentioned in the Psalms. Musical directions are given in the headings of many psalms, especially in the first three books: often the directions simply say 'for the chief musician', but some times they are considerably fuller, though difficult to be understood. And the situational context(Sitz im Leben) of final form can reasonably be placed between the time of the Chronicler and Maccabaeian period.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Psalm-headings and the Psalms' main text. Until now, most of scholars have not concerned about the meaning of the Psalm-headings in the Psalms. It is because the Psalm-headings in the Psalms had been edited in the latter period, while other versions were explaining the historical situation in the texts. Nevertheless, there is a reason to have a total of 116 headings in the Psalms (in its own way). Although the Psalm-headings in the Psalms had been edited in the latter period, it could catch a glimpse of the editor's

theological perspective. It seems that the editor wanted to have readers understand deeper meaning. The writer came to a result as following:

1) The concern to the tune- When compared the tune with text, the tune of Psalm-headings became a source of understanding the Psalms' text. (Pss. 7, 9, 16, 22, 32, 42, 44, 52, 53, 55, 56, 57, 58, 59, 60, 74, 78, 81, 84, 88, 89, 142).

2) The concern to the figures and historical context -In the Psalm-headings the figures and the historical context greatly helped to understand the psalmist's context(Pss. 3, 7, 52, 57, 59, 60).

As a result, Psalm-headings of the Psalms give a clue to the understanding on the text and a particular figure or a historical context in it.

Keywords

Psalms
tune
psalmist's context
Psalms-headings
historical context